

입법의회 제 1 부의장(NLA), 2 개의 선거법률안을 부결은 발생하지 않을것. 3 개측의 공동위원회의 합리적인 법률안 심의를 자신함

입력 2018.02.16 (10.05)



2018 년 2 월 14 일 - 입법의회 제 1 부의장은 마지막 2 개 선거법률안을 부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3 측의 공동위원회가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법률안을 심의할것이라 자신함

입법의회 제 1 부의장, 수라차이 리양분럿차이는 하원의원선거법률안과 상원의원선거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3 개측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대해 언급하며, 헌법초안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2 개의 법률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이후 3 개측의 공동 위원회의 설립 안건을 결의 할 예정임을 밝혔다. 공동위원회의 15 일 간의 심사 수정 기간을 거쳐 입법의회 다시 결의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3 개측의 공동위원회의 역할이며 개인적으로는 모든 관련부서에서 합리적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. 특히 국가를 위해 올바른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임명과 하원의원 선거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관련부서는 2 개의 선거법률초안이 전부 부결되는 일은 없을것이라 믿으라고 당부했다. 어쨌든 입법의회에서 이 법률안을 모두 한번에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만약 입법의회에서 어떠한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안 전부 통과되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.

태국 하원사무처 국회 방송국

낫 프인깃/기자

레누 케마판야/편집

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일본어 한국어과

솨자이 통쿤/번역